KIEP 지역경제 포커스
REGIONAL ECONOMIC FOCUS
2013년 7월 1일 | Vol. 7 No. 41
ISSN 1976-0507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김지연 협력정책실 통일국제협력팀 전문연구원 (jykim@kiep.go.kr, Tel: 3460-10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진행상황
2.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분석
3. 향후 전망 및 결론

주요 내용

▶ 2012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 1천~6만 1천 명으로 추산되며,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중국 관광객으로 조사됨.

- 중국 연길(延吉)을 통해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5,7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琿春)·투먼(圖們)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9,770명, 심양(瀋陽)·단둥(丹東)을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2만 4천~3만 4천여 명, 북경을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890명으로 추산됨.

▶ 중국인의 대북 관광은 일반적으로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며,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을 방문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됨.

- 변경관광은 통행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나진·선봉, 남양·온성, 신의주 등의 접경도시를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관광은 비자를 발급받아 평양,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성 등 북한의 내륙지역을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됨.
-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를 이용한 무박, 1박 2일,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반관광은 차량, 기차, 비행기를 이용한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됨.
- 중국 관광객 1인 기준으로 변경관광 비용은 약 700~2,500위안이며, 일반관광 비용은 방문지역과 기간, 숙박정보 등 선택정보에 따라 달라지나 약 2,800~6,500위안임.
- 중국 내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연길·훈춘·투먼, 심양·단둥, 북경 등이며, 연길·훈춘·투먼에서 단체관광을 조직하여 출국업무부터 북한 내 단체 관광객 인솔까지 유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여행사는 약 12~15곳이고, 심양·단둥에 6~10곳, 북경에 8~10곳이 존재함.

▶ 2012년 북한이 연길·훈춘·투먼, 심양·단둥, 북경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관광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약 2,169만~3,462만 달러임.

-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의 25.2~40.3%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됨.

▶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북핵문제 진행상황에 따라 양자간 관광협력 재개 여부와 속도, 범위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진행상황

■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관광산업을 장려함.

- 1980년대 초까지 북한은 관광을 비생산적인 자본주의 문화인 동시에 체제불안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음.
- 그러나 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범위가 축소되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변화로 야기된 외화부족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장려함.

○ 1992년 10월에 발표된 합영법시행세칙에서 북한은 관광을 대외경협의 한 분야로 지정하고,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에서는 관광을 국가 주요 사업의 하나로 지정함.

○ 1986년 5월 북한은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지도총국으로 확대 · 개편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1987년 대내적으로 9개 관광개방지역을 지정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회원으로 가입함.

■ 북한 관광의 최대 협력국은 중국이며, 북-중 관광협력은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2012년 북한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 1천~6만 1천 명으로 추산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을 여행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임.[1)]
-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중국 관광객으로 조사되며, 북-중 양국간 관광협력은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의 인프라 시설 구축이라는 양국간 경제협력 틀에서 추진되고 있음.[2)]

○ 중국정부는 훈춘과 원정리, 나진항을 잇는 도로를 개보수하였으며, 신(新)압록강대교 건설공사도 2010년 착공하였음.[3)]

- 북-중 관광교류는 1988년 4월 단둥시 국제여행사가 조직한 신의주 1일 관광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북한과 중국은 1992년 관광노선을 변경지역에서 평양, 묘향산, 금강산, 개성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4)]

○ 단둥에서 시작된 중국의 대북관광은 이후 연길, 훈춘, 투먼 등 변경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연변자치주는 1991년부터 북한과의 변경관광을 시작함.

○ 1992년 북한과 중국은 북한 내 관광지역을 내륙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고, 상품의 종류 역시 1일 관광에서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등으로 다변화함.

- 양국간 합의에 따라 북한의 관광지역이 변경에서 내륙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내륙관광은 2008년 중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방문지로 지정하고, 2009년 양국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활성화됨.

---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2013), 「2012年 1-12月入境旅游外国人人数(按目的分)」. Retrieved on 2013.6.28 from http://www.cnta.gov.cn/html/2013-1/2013-1-17-17-13-54943.html.
2) 최철호(2011), 「북중 관광 협력의 현황과 전망」, 『북한경제리뷰』, 10월호, pp. 79~100.
3) 「北中, 나진항~원정리 도로 이달 개통식」(2012. 9. 4), 『연합뉴스』; 「북·중 신압록강대교 주탑 완공…내년 7월 개통」(2013. 6. 4), 『연합뉴스』.
4) 최철호(2011).

○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인들의 대북관광은 도박을 하기 위해 변경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2006년 중국정부가 중국인의 도박관광을 금지하면서 중국인의 대북관광이 중단되었는데, 2008년 중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방문지로 지정하면서 관광이 재개됨.
○ 중국 여유국과 북한 관광총국은 2009년 '중국 관광객의 북한관광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이를 계기로 중국인의 대북관광이 활발하게 진행됨.
-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중국인의 대북관광은 중국정부에 의해 중단되었으며, 북-중 관광협력의 재개여부 및 구체적인 협력내용은 향후 양자 간 정치, 외교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5]

2. 북-중 관광협력의 실태분석

가. 관광협력 현황

1) 관광 시기 및 종류

■ 중국인의 대북관광은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됨.

- 북한관광은 낙후된 인프라 시설과 부족한 서비스 시설, 전력·에너지난 등 다양한 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만 진행됨.
○ 북한은 제설문제와 전력·에너지난으로 인해 겨울철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제한된 숙박시설로 인해 관광객의 입국수위를 조절하고 있음.

■ 북한관광은 접경지역을 방문하는 변경관광과 북한 내륙을 방문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되어 진행됨.

- 변경관광은 통행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나진·선봉, 남양·온성, 신의주 등의 접경도시를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관광은 비자를 발급받아 평양,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개성 등 북한의 내륙지역을 돌아보는 형태로 진행됨.
-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를 이용한 무박, 1박 2일, 3박 4일,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반면, 일반관광은 차량, 기차, 비행기를 이용한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됨.
○ 변경관광 중 당일 코스는 △ 투먼에서 출발하는 남양-온성 관광과 △ 단둥에서 출발하는 신의주 관광이 있으며, 1박 2일 상품은 연길과 훈춘에서 출발하는 나진·선봉 관광, 3박 4일 상품으로는 △ 투먼에서 출발하는 칠보산 관광, 4박 5일 상품에는 △ 연길과 투먼에서 출발하는 칠보산 관광이 있음.[6]
○ 일반관광에서 3박 4일 코스는 △ 연길, 투먼, 심양, 단둥, 북경에서 각각 출발하는 평양, 묘향산 관광과 △ 연길에서 출발하는 평양, 금강산 관광이 있으며, 4박 5일 코스는 △ 연길, 심양, 단둥, 북경에서 출발하는 평양,

5) 중국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6)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묘향산 관광 △ 연길에서 출발하는 평양, 금강산 관광 △ 연길에서 출발하는 금강산 관광, 5박 6일 코스는 북경에서 출발하는 평양, 묘향산 상품, 6박 7일 코스는 △ 연길에서 출발하는 평양, 금강산 관광과 △ 북경에서 출발하는 평양, 묘향산 관광이 있음.[7)]

- 변경관광은 통행증으로 입경이 가능하며, 일반관광은 비자를 취득한 후 입경이 가능함.

○ 통행증 발급을 위해 지원자는 칼라 증명사진 3장과 여권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를 여행사에 제출해야 하며, 비자 신청을 위해 관광객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비자용 칼라 사진 2장, 신분증 사본, 북한 비자 신청서를 여행사에 제출해야 함.[8)]

○ 통행증 발급 심사기간은 중국인의 경우 1~7일, 외국인의 경우 7~10일이 소요되며, 비자 심사기간은 중국인의 경우 7~10일, 외국인의 경우 14~21일이 소요됨.

- 중국 관광객 1인을 기준으로 변경관광 비용은 약 700~2,500위안이며, 일반관광은 방문지역과 기간, 숙박정보 등 선택정보에 따라 달라지나 약 2,800~6,500위안임.[9)]

○ 변경관광의 경우 상품비용은 여행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남양, 온성의 경우 1인당 700~800위안 수준이며, 나선관광은 800~1,000위안, 칠보산관광은 1,700~2,500위안 수준임.

○ 일반관광의 경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3박 4일 일정을 기차로 이동할 때 2,800~3,000위안,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3,900~4,700위안 △ 4박 5일 일정을 기차로 움직일 때 3,800~4,000위안,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4,600~5,300위안, 유람선을 이용할 경우 3,900~4,900위안 △ 5박 6일 일정을 기차로 움직일 때 3,400~3,900위안 △ 6박 7일 일정을 기차로 이동할 경우 3,900~4,400위안, 유람선 및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5,500~6,500위안 수준이 소요됨.

○ 북한 관광상품은 북한 측 요구에 따라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됨.

표 1. 중국 관광객들의 대북관광 비용

종류	기간	관광도시	이동수단	1인당 여행비용(RMB)
변경관광	무박	남양온성, 신의주	차량	700~900
	1박 2일	나진, 선봉	차량	800~1,000
	3박 4일	칠보산	차량	1,700~2,000
	4박 5일	칠보산	기차	2,000~2,500
일반관광	3박 4일	평양, 금강산, 묘향산	비행기	3,900~4,700
		평양, 묘향산	기차	2,800~3,000
	4박 5일	평양, 묘향산	기차	3,800~4,000
		평양, 금강산, 묘향산	비행기	4,600~5,300
		금강산	선박(유람선)	3,900~4,900
	5박 6일	평양, 묘향산(단둥 경유)	기차	3,400~3,900
	6박 7일	평양, 묘향산(단둥 경유)	기차	3,900~4,400
		평양, 금강산	선박(유람선), 비행기	5,500~6,500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7)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8)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9)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2)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중국의 주요 도시 및 여행사 정보

■ 중국 내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연길 · 훈춘 · 투먼, 심양 · 단둥, 북경 등임.

- 변경관광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접경지역인 연길·훈춘·투먼과 단둥 등이며, 일반관광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평양 직항노선이 개설된 연길, 심양, 북경 등임.
- 다른 지역에 있는 국제여행사들은 주로 연길, 단둥, 북경 같은 주요 도시에서 출국권(出境權)을 갖고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국제여행사들과 연합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여행사들은 관광객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여행경비의 8~13% 수준의 수수료를 소개비 명목으로 주고받음.

■ 연길 · 훈춘· 투먼에서 단체관광을 조직하여 출국업무부터 북한 내 단체관광객 인솔까지 유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여행사는 약 12~15곳이며, 심양·단둥에 6~10곳, 북경에 8~10곳이 존재함.

-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으로부터 국제여행사 업무허가를 받은 1,864개 여행사는 중국인의 대북 단체관광을 조직할 권한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중국인의 출국업무를 처리하고, 북한에서 단체관광객을 인솔할 수 있는 국제여행사는 북한 당국이 추천하는 북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들임.[10]
  - ○ 국제여행사를 설립하기 위해 신청자 개인 또는 단체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비하거나 1년 이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전화와 팩스·복사기·업무용 컴퓨터 등 여유국에서 지정한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춰야 하며, 150만 위안(RMB)을 사업 보증금으로 여유국에 예치해야 함.[11]
  - ○ 북한 당국이 지정한 주요 여행사는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체육여행사 등임.[12]
- 연길에서 북한상품을 판매하고, 중국인의 출국을 담당하는 주요 여행사는 연변외사국제여행사(延边外事国际旅行社), 연길시천우국제여행사(延吉市天宇国际旅行社), 연변붕용국제여행사(현 延边鹏龙国际旅行社, 구 연변강휘국제여행사(延边康辉国际旅行社)) 등을 포함해 약 8~10곳이 있고, 훈춘에는 삼강국제여행사(三疆国际旅行社) 등을 포함해 3~4곳, 투먼에는 투먼시투먼강국제여행사(图们市图们江国际旅行社)가 있음.[13]
- 심양·단둥에는 심양국제여행사(沈阳国际旅行社), 단둥중국국제여행사(丹东中国国际旅行社), 요녕홍양국제여행사(辽宁鸿祥国际旅行社), 단둥해외국제여행사(丹东海外国际旅行社) 등을 포함해 6~10곳이 있음.[14]
- 북경에는 중국국제여행사총사(中国国际旅行社总社), 북경중국국제여행사(北京中国国际旅行社总社), 중국강휘국제여행사(中国康辉国际旅行社), 중국부녀여행사(中国妇女旅行社) 등을 포함해 8~10개의 여행사가 있음.[15]

---

10) 旅行社条例实施细则. 2009. Retrieved on 2013.6.25 from http://www.legaldaily.com.cn/0801/2009-04/30/content_1084842.htm;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11)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2010), 关于开展中国旅游团队赴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旅游业务的通知 旅国际发, 5号.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2010), 边境旅游暂行管理办法. http://www.cnta.gov.cn/html/2010-12/2010-12-15-15-13-44723.html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Authorized Travel Agencies for Outbound Travel By Chinese Citizens. Retrieved on 2013.6.21 from http://en.cnta.gov.cn/TravelInChina/Forms/TravelInChina/TravelAgencies.aspx?Area=TianJin;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12)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13) 国家旅游局公布最新边境游旅行社资质名单(2012), Retrieved on June 25, 2013 from http://go.huanqiu.com/news/2012-10/3193931.html;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14)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15)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 주요 관광상품 정보: 방문지역, 기간,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 연길에 위치한 국제여행사들이 판매하는 주요 대북관광 상품은 여행일정을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선봉, 평양-금강산, 평양-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등임.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진·선봉을 방문하는 변경관광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금액은 1인당 약 800~1,000위안 수준임.
- 평양-금강산, 평양-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관광은 3박 4일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관광기간과 교통수단 등 선택상황에 따라 1인당 2,100~6,500위안까지 다양함.

표 2. 연길에서 출발하는 주요 관광상품(2013년 1월 기준)

구분	지역	주요 일정(주요 방문지)	교통수단	숙박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1박 2일	나진, 선봉	첫째 날: 60년대 공동농장 공동합작사, 승리화학공장 나진항, 어린이공연 참관 둘째 날: 비파도, 유람선, 선봉항, 승리정유공장, 피석산장, 물개공연 관람	관광버스 자가용	3성 호텔 (나진시)	800~1,000위안/인 식사, 차량, 호텔(2~3인실), 관광지입장료, 통행증발급비, 중국가이드	물개공연(100위안), 유람선(80위안), 마사지(100 위안), 해물요리(50~80위안), 특별연회(30위안), 쇼핑, 외국어서점, 우표상점, 해산물상점)	-반입금지 품목: 핸드폰, 라디오, 무선호출기, 망원경, MP4, 간행물, CD, 테이프 -외화반입 규정: 위안화 2,000, 미화 6,000달러 이상 소지, 반입 금지 -위약금: 출발 전날까지 여행비의 40%, 출발일 100% 위약금 발생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도착,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버스 이동) 셋째 날: 개성, 판문점, 평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출국 JS542, 입국 JS541), 관광버스	평양: 고려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 (5성급)	3,980~4,180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비자, 중국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200위안)(단, 북한 가이드는 북한말로 안내 예정), 기타 개인경비(예. 쇼핑: 안궁환 700위안/개)	-세면도구 준비 -지정장소에서만 사진촬영 위반시 벌금 5,000위안/인 -반입, 휴대 금지품목: 상기 내용 참조 -2만 위안 이상 반입금지 -밀수, 도박금지 -자연재해 발생시 배상 없이 취소 가능 -취소규정: 수속기간 중 위약금 없음, 출발 3일 전 1,000위안, 출발 전날 1,500위안, 당일 환급금 없음
	평양, 금강산	첫날: 평양도착, 금강산 도착 둘째 날: 금강산 관광 셋째 날: 평양이동, 시내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버스	금강산: 외금강호텔 (4성급) 평양: 고려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 (5성급)	3,980~4,400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비자, 중국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200위안), 기타 개인경비	
4박 5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도착, 시내관광 둘째 날: 개성, 판문점 셋째 날: 묘향산(버스) 넷째 날: 남포, 서해갑문 다섯째 날: 귀국	비행기, 관광버스	고려 호텔 또는 양각도호텔 (5성급)	4,780~4,980 항공권, 비자, 식사, 호텔, 버스, 입장료, 보험, 비자, 중국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200위안), 기타 개인경비	
	평양, 금강산	첫날: 평양 도착, 원산에서 저녁식사, 금강산 이동(버스) 둘째 날: 금강산 관광, 온천욕 셋째 날: 평양관광 넷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다섯째 날: 귀국	비행기 (출국 JS542, 입국 JS541), 관광버스	금강산: 외금강호텔 (4성급) 평양: 고려호텔 또는 양각도 호텔(5성급)	4,780~5,000 비행기표, 숙박, 식사, 비자, 차량, 보험, 중국 가이드	온천(100위안), 북한 가이드·기사 팁(200위안), 기타 개인경비 등	
	금강산	첫날: 나선 관광 둘째, 셋째 날: 금강산 관광 넷째 날: 나선관광 다섯째 날: 귀국	관광버스, 선박 (유람선)	황성유람선 (나선항, 고성항 정박)	3,880~4,880 선박비, 차량, 숙박, 식사, 보험, 비자, 중국 가이드	유람선(80위안), 온천 (100위안), 북한 가이드·기사 팁(200위안), 기타 개인경비 등	

표 2 계속.

구분	지역	주요 일정(주요 방문지)	교통수단	숙박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4박 5일	칠보산	첫날: 남양도착 둘째, 셋째 날: 칠보산 관광 넷째 날: 경성, 청진관광 다섯째 날: 귀국 (투먼시 여행사와 협력)	기차, 관광버스	민속촌, 칠보산 호텔	2,100~2,300 기차, 차량, 숙박, 식사, 여행보험, 통행증발급, 중국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20위안), 유람선 탑승료(30위안), 해산물 요리, 함북예술단 공연(100위안), 온천 (30위안), 북한 가이드·기사 팁, 기타 개인경비	-통행증으로 관광가능 -반입금지품목 라선지역(1박2일)과 동일 -6천 위안 이상 반입금지 -위약금: 출국 10~6일 전 400위안, 5~4일 전 여행비 70%, 3~1일 전 85%, 당일 90% 위약금 발생
6박 7일	평양, 금강산	첫날: 나선관광 둘째, 셋째 날: 금강산 관광 넷째 날: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여섯째 날: 평양 관광 일곱째 날: 귀국	-출국: 관광버스 선박(유람선) -입국: 비행기	황성유람선, 외금강호텔, 고려호텔/양각도 호텔	5,500~6,500 선박비, 비자, 차량, 숙박, 식사, 보험, 중국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 온천, 기타 개인경비 등	3박 4일 주의사항과 동일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 훈춘, 투먼에서 출발하는 주요 대북 관광상품은 여행일정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되며,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 · 선봉, 남양 · 온성, 칠보산 등임.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춘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차량을 이용하여 1박 2일 동안 나진 · 선봉을 방문하는 상품이며, 기본비용은 약 800~1,000위안/인임.
- 투먼의 국제여행사가 판매하는 주요 대북 관광상품은 당일로 다녀오는 남양· 온성 코스, 1박 2일의 나진· 선봉 코스, 3박 4일과 4박 5일간의 칠보산 관광 등이며, 비용은 1인당 700위안에서 2,500위안까지 다양함.

표 3. 훈춘, 투먼에서 출발하는 주요 관광 상품들(2013년 1월 기준)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주요 방문지)	교통수단	숙박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훈춘	1박 2일	나진 선봉	나진, 선봉	관광버스, 자가용	3성 호텔 (나진시)	800~1,000위안/인 식사, 차량, 호텔, 입장료 통행증, 보험 가이드비용	물개공연 (100위안), 유람선 (80위안), 마사지(100 위안), 해물요리 (50~80위안), 특별 연회(30위안), 북한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반입금지 품목 핸드폰, 라디오, 무선호출기, 망원경, MP4, 간행물 등 -외화반입 규정 : 위안화 2,000, 미화 6,000달러 이상 반입 금지
투먼	1일	남양, 온성	남양, 온성지역 관광	버스	-	700~800 식사, 차량, 가이드, 보험 통행증발급	개인경비	-통행증으로 관광가능 -민가투숙 시 샤워시설 없음 -반입금지품목 나선지역(1박 2일)과 동일 -6천 위안 이상 반입금지 -위약금: 출국 6~10일 전 취소시 500위안/인, 4~5일 전 여행경비의 70%, 3~1 일 전 85% 위약금 발생
	3박 4일	칠보산	첫날: 회령, 청진관광 둘째 칠보산 관광 셋째 날: 칠보산, 경성관광 넷째 날: 귀국	버스	민속촌, 경성호텔 *민가에 투숙할 수 있음	1,680~2,000 기차, 차량 숙박, 식사 보험, 통행증 중국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20위안), 유람선 탑승료 (30위안), 해산물요리, 예술단공연(100위안), 온천(30위안),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4박 5일		첫날: 남양도착 둘째, 셋째 날: 칠보산 관광 넷째 날: 경성, 청진관광 다섯째 날: 귀국	기차		1,950~2,450 기차, 차량 숙박, 식사 보험, 통행증 가이드	해수욕장 입장료(20위안), 유람선 탑승료 (30위안), 해산물요리, 예술단공연(100위안), 온천(30위안), 가이드·기사 팁, 개인경비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 심양, 단둥에 위치한 국제여행사들이 취급하는 주요 대북 관광상품은 여행일정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주요 방문지는 신의주, 평양-묘향산 등임.

- 2013년 6월 기준으로 심양에 있는 여행사들이 취급하는 주요 상품은 비행기를 이용한 평양-묘향산 코스이며, 기본비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900~5,100위안/인임.

- 단둥에서 출발하는 주요 상품은 무박으로 다녀오는 신의주 코스와 3박 4일, 4박 5일간 기차로 다녀오는 평양-묘향산 코스이며, 비용은 무박상품의 경우 780~880위안/인, 3박 4일 코스는 2,800~3,000위안/인, 4박 5일 코스는 약 3,800~4,000위안/인임.

표 4. 심양, 단둥에서 출발하는 주요 관광상품(2013년 3월 기준)

출발지	구분	지역	주요 일정(주요 방문지)	교통수단	숙박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심양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출국:JS156 입국:JS155	양각도 또는 고려호텔	3,900~4,100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가이드, 입장료	북한 가이드·기사 팁(40~80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 (80위안, 8~10월)	세면도구 준비 -비상식량은 권장사항 -금지품목: 휴대 전화, 망원경, 노트북, 한글 서적 · 의복 등 -신분증 원본 소지 -지정된 장소 이외 사진촬영 금지 -외화반입의 최고한도 없으나 6,000위안, 5,000달러 이하 소지 권장
	4박 5일		첫날: 평양 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넷째 날: 남포,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귀국			4,600~5,100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가이드, 입장료	북한 가이드·기사 팁(40~80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 (80위안, 8~10월)	
단둥	1일	신의주	신의주 관광	버스	-	780~880 차량, 식사 보험, 입장료 가이드, 통행증발급	북한 가이드·기사 팁(100위안), 개인 경비	-최소인원 모집 실패 시 출발일 변경가능. -위약금: 4일 전 30위안, 하루 전~당일 1,000위안 *둘째~셋째 날 일정 교체 가능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 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기차	양각도 또는 고려호텔	2,750~3,000 기차, 숙박 비자, 차량 가이드, 보험 입장료	북한 가이드, 기사 팁(40~80 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800위안, 8~10월)	
	4박 5일		첫날: 평양 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넷째 날: 남포, 평양 관광 다섯째 날: 귀국			3,800~4,000 기차, 숙박 비자, 차량 가이드, 보험 입장료	북한 가이드·기사 팁(40~80 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공연(800위안, 8~10월)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 북경에서 출발하는 주요 대북관광 상품은 여행일정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으며, 주요 방문지는 평양지역임.

- 북경에 있는 국제여행사들이 취급하는 주요 대북관광 상품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양과 묘향산, 개성을 비행기 또는 기차를 이용해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간 다녀오는 상품들이며, 여행경비는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지나 약 3,400~5,300위안/인임.

표 5. 북경에서 출발하는 주요 관광상품(2013년 1월 기준)

구분	지역	주요 일정(주요 방문지)	교통수단	숙박정보	기본상품 비용(RMB)		기타 주의사항
					포함사항	선택사항(1인당 추가경비)	
3박 4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넷째 날: 귀국	비행기 (출국 JS152 입국 JS151)	양각도 또는 고려호텔	4,300~4,680		-비자 필요 -반입금지 품목 : 핸드폰, 라디오, 무선호출기, 망원경, MP4, 간행물, CD, 테이프 -위약금: 7일 전 환불 500위안, 3일 전 환불 1,000위안, 3일 전 2,000위안, 당일 취소 여행지 전액 위약금 발생 -언론관계자 입국금지 -개별 행동 금지 -위안화 사용 가능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북한 가이드·기사 팁(80위안),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 공연(800위안, 8~10월)	
4박 5일	평양, 묘향산	첫날: 평양이동 및 시내관광 둘째 날: 묘향산 관광 셋째 날: 남포, 평양관광 넷째 날: 개성, 판문점 관광 다섯째 날: 귀국			4,800~5,280		
					비행기, 숙박, 비자 차량, 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100위안), 상해보험 (30위안), 아리랑공연 (800위안), 서커스 (100위안), 기타 개인 경비	
5박 6일	평양, 묘향산	첫날: 단둥도착 둘째 날: 평양도착 셋째 날: 평양, 개성관광 넷째 날: 묘향산관광 다섯째 날: 단둥도착 여섯째 날: 북경도착	기차 (K27)	평양 내 호텔	3,380~3,880		
					기차, 숙박 비자, 차량 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80위안), 군사관리비(200 위안), 주체사상탑 등탑(50위안), 기념CD(200위안 /장), 상해보험 (30위안), 아리랑공연 (800위안), 서커스(100 위안), 기타 개인 경비	
6박 7일	평양, 묘향산	첫날: 단둥도착 둘째 날: 평양도착 셋째 날: 평양, 개성관광 넷째 날: 묘향산관광 다섯째 날: 남포, 평양관광 여섯째, 일곱째 날: 귀국			3,900~4,400		
					기차, 숙박 비자, 차량 보험, 입장료 가이드	북한 가이드·기사 팁(80위안), 군사 관리비(200 위안), 주체사상탑 등탑(50위안), 기념 CD(200위안 /장), 상해보험(30위안), 아리랑 공연(800위안), 서커스(100 위안), 기타 개인 경비	

자료: 중국 현지조사에서 취득한 국제여행사들 상품소개서 인용(2013. 6).

4) 2012년도 북한 여행 중국 관광객 정보: 연길·훈춘·투먼, 심양·단둥, 북경 출발지를 기준으로

■ 2012년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 1,340~6만 1,340명으로 추산됨.

- 연길을 통해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표 6]과 같이 약 1만 5,700명으로 추산됨.[16]

○ 비행기를 통해 북한 관광을 다녀온 중국인 여행객 수는 약 1,760명으로 추산되며, 차량을 이용해 변경관광을 다녀온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3,920명으로 추산됨.

표 6. 연길을 통해 북한 여행을 다녀온 중국인 관광객 수 추정(2012년 기준)

구분	이동수단	산출근거
일반관광 (평양 중심)	비행기	80명 * 2회/주 * 11주 = 1,760명
		세부사항: 1) 평양관광이 중심이며, 여행사간 연합으로 진행. 2) 최소 출발인원은 약 80명이며, 고려항공 이용(요금 2,300~2,700위안/인) 3) 북한 여행은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나 비행기를 이용한 내륙관광은 7월부터 9월 초에 집중적으로 진행됨(성수기 기간은 2012년 기준으로 11주). 4) 관광객이 많을 때는 만석이나, 성수기 전 기간이 만석인 것은 아니며, 최소인원이 모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일정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최소 출발인원을 기준인원으로 적용함.

16)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표 6 계속.

구분	이동수단	산출근거
변경관광 (나진선봉)	차량	20명 * 3회/주 * 29주 * 8개 여행사 = 13,920명
		세부사항: 1) 일반적으로 국제여행사들은 단독으로 진행하며, 국내여행사들은 모객 후 일정의 소개비(10% 내외)를 받고 관광객들을 국제여행사에 소개함. 만일 국제여행사라도 최소인원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국제여행사와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함. 2) 변경관광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4월말부터 11월 초까지임(2012년 기준: 29주) 3) 여행사별 최소 출발인원은 16~18명임. 국제여행사들이 직접 모객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타 여행사들로부터 관광객을 인도받는 경우가 있어(10~20%), 기준인원을 최소 출발인원의 1.1~1.2배인 20명으로 책정함.
소계		1,760명 + 13,920명 = 15,680명

주: 칠보산 여행은 투먼시투먼강여행사가 독점권을 갖고 다른 여행사들과 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상품은 투먼 사례에서 정리함.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 훈춘, 투먼을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관광객 수는 [표 7]과 같이 약 9,770명으로 추산됨.[17]

○ 훈춘을 통한 북한관광은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해 나선을 여행하는 형태이며, 투먼은 기차를 이용한 칠보산 관광이 중심을 이룸.

표 7. 훈춘, 투먼을 통해 북한여행을 다녀온 중국인관광객수 추정(2012년 기준)

지역	구분	이동수단	산출근거
훈춘	변경 관광 (나진 선봉)	차량	70명 * 29주 * 4개 여행사 = 8,120명
			세부사항: 1) 나진선봉이 중심 관광지 2) 16~18명이 최소 출발인원이며, 성수기와 비수기간의 출국인원 차이가 있으나, 1년간 출국한 전체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매달 평균 60~80명이 출국함. 따라서 중간 값을 기준인원으로 적용함. 3) 관광기간을 2012년 4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29주로 적용 4) 출국권을 갖고 훈춘시에서 북한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여행사는 4개
투먼	변경 관광 (칠보산)	기차	150명 * 11주 * 1개 여행사= 1,650명
			세부사항: 1) 칠보산 관광이 중심이며, 칠보산 관광상품에 대한 출국권은 투먼시투먼강국제여행사만 갖고 있음. 따라서 다른 여행사들이 모객활동은 할 수 있으나 출국 및 행사진행 등 최종업무는 투먼강여행사만 진행할 수 있음. 2) 관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7월부터 9월 초까지임(2012년 기준: 11주). 3) 성수기에 여행사가 보내는 관광객 수는 평균 140~160명/회이며, 따라서 150명을 1회 평균값으로 책정함.
소계			8,120명 + 1,650명 = 9,770명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 지난해 심양, 단둥을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2만 4,000~3만 4,000명으로 추정됨.

○ 심양, 단둥 지역에서는 변경관광보다 평양-묘향산 상품 위주의 일반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동수단으로 비행기와 기차 모두 활용되고 있음.

○ 비행기를 통해 평양-묘향산 지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는 4천여 명으로 조사되며, 단둥에서 기차를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2만~3만 명으로 조사됨.[18]

17)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18) 한국관광공사 심양지사 관계자 및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 북경을 통해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표 8]과 같이 약 1,890명으로 추산됨.

○ 북경에서 출발하는 대북 관광상품은 비행기를 이용해 평양과 주변지역을 여행하는 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 단둥 내 국제여행사들과 연계되어 진행됨.

표 8. 북경을 통해 북한여행을 다녀온 중국인관광객수 추정(2012년 기준)

구분	이동수단	산출근거
일반관광 (평양-묘향산)	비행기	30명/달 * 7개월 * 9개 여행사 = 1,890명
		세부사항: 1) 비행기를 이용해 평양과 주변지역을 관광하는 상품이 중심.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단둥을 거치기 때문에 단둥 내 국제여행사들과 연계되어 진행. 따라서 북경 출발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기준으로 추산 2) 최소인원 확보를 위해 여행사간 연합으로 진행하며, 1달 평균 북한여행으로 1개의 국제여행사에 모집되는 관광객 수는 30명 전후임. 3) 관광기간은 2012.4월 말~2012.11월 초까지 약 7개월 4) 북경에서 북한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제여행사는 9개로 파악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나. 북한의 관광수입 추정: 연길·훈춘·투먼, 심양·단둥, 북경 출발지를 중심으로

■ 북한이 연길 · 훈춘 · 투먼, 심양 · 단둥, 북경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관광수입은 2012년 기준으로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됨.

- 여행사들은 최소 출발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관광을 다른 여행사들과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소 출발인원은 교통수단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북한의 관광수입 규모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추산됨.
- 또한 일정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규모가 최소와 최대로 구분되어 추산됨.
- 연길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약 2,809만~3,221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훈춘 · 투먼을 통한 수입은 1,494만~1,827만 위안, 심양 · 단둥을 통한 수입은 8,154만~1억 5,186만 위안, 북경을 통한 수입은 873만~1,040만 위안으로 추산됨.

표 9. 연길 · 훈춘 · 투먼, 심양 · 단둥, 북경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한 북한의 외화수입 규모추정(2012년 기준)

(단위: RMB)

출발지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연길	비행기	최소	1,760명 * 3,980위안 * 0.9 = 6,304,320
		최대	1,760명 * 5,000위안 * 0.9 = 7,920,000
	차량	최소	13,920명 * 800위안 * 0.9 = 10,022,400
		최대	13,920명 * 1,000위안 * 0.9 = 12,528,000
	추가경비		(1760 + 13,920명) * 750 위안 = 11,760,000
	소계(a)		28,086,720 ~ 32,208,000
훈춘, 투먼	차량	최소	8,120명 * 700위안 * 0.9 = 5,115,600
		최대	8,120명 * 1,000위안 * 0.9 = 7,308,000
	기차	최소	1,650명 * 1,680위안 * 0.9 = 2,494,800
		최대	1,650명 * 2,450위안 * 0.9 = 3,638,250
	추가경비		(8,120 + 1,650명) * 750위안 = 7,327,500
	소계(b)		14,937,900 ~ 18,273,750

표 9 계속.

출발지	이동수단	추산범위	산출근거
심양, 단둥	비행기	최소	4,000명 * 3,900위안 * 0.9 = 14,040,000
		최대	4,000명 * 5,100위안 * 0.9 = 18,360,000
	기차	최소	20,000명 * 2,750위안 = 49,500,000
		최대	30,000명 * 4,000위안 = 108,000,000
	추가경비	최소	(4,000 + 20,000명) * 750위안 = 18,000,000
		최대	(4,000 + 30,000명) * 750위안 = 255,000,000
	소계(c)		81,540,000 ~ 151,860,000
북경	비행기	최소	1,890명 * 4,300위안 * 0.9 = 7,314,300
		최대	1,890명 * 5,280위안 * 0.9 = 8,981,280
	추가경비		1,890명 * 750위안 = 1,417,500
	소계(d)		8,731,800 ~ 10,398,780
합계(a+b+c+d)			133,296,420 ~ 212,740,530

주: 1) 외화수입 = (인원수 * 상품가 * 북한이 여행사 경비에서 취하는 비율) + (인원수 * 중국관광객 1인당 추가 지출비용).
2) 인원수 및 최소, 최대 추산범위 기준은 앞장의 내용 참고.
3) 여행사가 취하는 비용은 전체 경비의 10% 내외. 남은 금액은 모두 북한으로 유입.
4) 여행사별로 조금씩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으로 범위를 설정해 외화 유입규모를 추산함.
5)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여행에서 추가로 집행하는 경비는 평균 1인당 500~1,000위안 정도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북한 가이드•기사 팁(100위안/인), 안궁환(청심환 700위안/개), 추가 입장료(200위안/인, 예. 온천, 물개쇼, 어린이공연 등), 기타 개인경비(쇼핑) 등임. 따라서 북한여행에서 중국관광객 1인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값인 750위안에 기준하며, 소비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전액 북한수입으로 처리.
6) 연길 출발 상품가운데 차량-유람선 상품과 차량-비행기 연계상품은 상품이 거의 판매되지 않아 비행기, 차량을 이용했던 상품들만 추산함.
7) 심양, 단둥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변경관광이 소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력상품인 비행기, 기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주요 수입원으로 적용함.
8) 북경에서는 기차를 이용한 상품이 단둥여행사들과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수입만 추산함.
자료: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 내용(2013. 6).

■ 북한이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2012년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외화수입의 25.2~40.3%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됨.

- 연길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7만~524만 달러로 추산되며, 훈춘 · 투먼을 통한 수입은 243만~298만 달러, 심양·단둥을 통한 수입은 1,327만~2,471만 달러, 북경을 통한 수입은 142만~169만 달러로 추산됨.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규모는 2013년 2월 기준으로 약 716만 달러이며, 이를 연간규모로 환산하면 8,600만 달러에 달함.[19]

표 10. 연길 · 훈춘 · 투먼, 심양 · 단둥, 북경에서 출발하는 중국 관광객을 통한 북한의 관광수입 추정: 미화 기준

출발지	연길	훈춘, 투먼	심양, 단둥	북경	합계
USD	457만~524만	243만~298만	1,327만~2,471만	142만~169만	2,169만~3,462만

주: 환율 1USD = 6.15RMB(2013. 6. 28 기준).

19) 53,466명 * 134달러 * 12달 = 8,600만 달러.
통일부. 정보마당: 통계자료(2013. 6. 27일 검색), http://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0.

3. 향후 전망 및 결론

■ 북한은 외화확보를 위해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중국은 북핵문제 진행상황에 따라 양자간 관광협력 재개여부와 속도, 범위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2013년 3월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 반면, 중국은 그 다음달인 4월 자국민의 대북 단체관광을 금지함.[20]

○ 중국인의 대북관광은 북한이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이며,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작용함.

○ 북한의 관광업무 실무책임자가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관광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불안과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중국인의 대북단체관광을 금지함.

- 2013년 6월 28일 유람선을 이용한 금강산 단체관광이 재개된 것으로 조사되나, 북-중 관광협력 지속여부와 범위, 속도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정치·외교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단계에 진입하면, 양국간 관광협력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북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현재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린성 정부가 훈춘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금강산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대북관광이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21]

○ 북핵문제가 악화된다면, 북-중 관광협력은 정치·외교관계의 영향을 받아 계속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의 대북관광이 재개된다고 해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현존하는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한될 것으로 보임.

- 북한 여행을 선택하는 주요 중국 관광객은 50대 이상의 중년, 노년층이며, 이들이 북한 여행을 하는 주요 목적은 과거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기 위함임.

- 젊은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는 △ 북한 내 미비한 인프라 시설과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함 △ 엄격하고 까다로운 행동규칙 및 수많은 금지사항, 이로 인한 관광객들의 제한된 자유 △ 젊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부족 등에 기인함.

- 따라서 다양한 제약요인이 제거되고 차별화된 상품이 소개되기 전까지 북한은 편중된 관광객층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관광수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KIEP

20) 「북한, 관광객 유치 총력..관광총국장 방중」 (2013. 3. 28), 『연합뉴스』 ; 「중국 관리 "북한 단체관광 중단"」 (2012. 4. 10), 『연합뉴스』.
21) 「중국, 훈춘에 출입국사무소 설립...북한관광 확대」(2013. 6. 16), 『연합뉴스』; 중국 현지 국제여행사 및 여행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 인터뷰(2013. 6. 3~7).